

생활과 윤리  
[2020 수능대비]

**현우소**

**활연관통**

-SEASON.3-





F I N A L

활연관통

생운

생활과 윤리, 만점을 위한  
최고의 수험서, 활연관통

STEP

I

선지    킬러    고난도  
OX퀴즈    총정리

당신의 1등급이 이 교재의 철학!

**현우소 활연관통 시즌2**  
GOD'S MASTER PLAN



본 교재에 대한 저작권은 이현우와 현우소(주)에 있으며, 무단 복제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kendrick1028@naver.com으로 신고바랍니다.

## STEP1. 킬러 고난도 선지IOX 총정리

### THEME2.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기출코드	선지	O/X
1	2020수능특강	스토아학파는 이성을 가진 모든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본다.	
2	2020수능특강	스토아학파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본다.	
3	2020수능특강	스토아학파는 모든 정념을 제거하는 태도를 추구한다.	
4	2020수능특강	스토아학파는 칸트와 마찬가지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이성에 일치하는지 고려해야한다고 본다.	
5	2020수능특강	스토아학파는 자기애를 넘어 동료 시민과 인류 전체에 대한 포용과 사랑을 강조한다.	
6	2020수능특강	스토아학파는 아퀴나스와 마찬가지로 자연법이 모든 실정법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7	고난도 예상	아퀴나스는 인간이 가진 종족을 보존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을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	
8	고난도 예상	스토아학파는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은둔자적인 생활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9	고난도 예상	매킨타이어는 도덕 생활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강조했다.	
10	고난도 예상	매킨타이어는 행위의 도덕성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에 의해 판단된다고 본다.	
11	고난도 예상	아퀴나스는 자연적 성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신이 부여한 인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12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보았다.	
13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진리란 현실 속의 개별 사물에 대한 지식이라고 보았다.	
14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는 반복적 실천을 통한 습관화를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15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인 덕과 품성적 덕 모두 이성과 결부되어 있다고 본다.	
16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각각의 존재마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보았다.	
17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도 세계에 대한 관조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18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 지혜를 최고의 덕으로 본다.	
19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하나의 가치에 대한 중용의 상태가 바뀔 수 있다고 보았다.	
20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에 이성적 판단이 개입된다고 보았다.	
21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통해 실천적 지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22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대상이 실천적 지혜라고 본다.	
23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을 통해 충동과 감정을 억제하여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추구 했다.	
24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덕인 철학적 지혜를 통한 지적 관조로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25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의 목적을 추구하는 자아실현에 있어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26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이성적 관조 활동에 뒤따라 일어나는 것이라고 본다.	
27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을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이라고 보았다.	
28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을 3가지 부분으로, 플라톤은 2가지 부분으로 구분했다.	
29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 지혜는 숙고, 즉 이성적 헤아림의 대상이 되는 것에 관여한다고 보았다.	
30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는 품성적 덕의 충분조건이라고 보았다.	
31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는 중용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32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은 인간의 모든 행동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라고 본다.	
33	2020.06.모평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는 실천적 지혜가 없다면 형성될 수 없는 덕이라고 본다.	
34	2020.06.모평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는 본성을 극복하여 형성해야하는 덕이라고 본다.	
35	2020.06.모평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삶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36	2020.06.모평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떠나서는 어떠한 참된 정의도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 STEP1. 킬러 고난도 선지OX 총정리

37	고난도 예상	아퀴나스는 자연법에 대한 이성적 인식능력의 차이가 인간의 도덕적 지위에서 차등성을 유발한다고 본다.	
38	고난도 예상	아퀴나스는 국가의 실정법이 자연법에 근거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본다.	
39	고난도 예상	아퀴나스는 자연법은 영구불변한 법으로서 태초부터 인류에게 주어진 법이라고 본다.	
40	고난도 예상	아퀴나스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라고 본다.	
41	2020.09.모평	아퀴나스는 악이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한 실체라 본다.	
42	고난도 예상	아퀴나스는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 기준은 자연법에 대한 인간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	
43	고난도 예상	길리건은 여성이 차별받아 온 역사를 비판하면서 남녀의 선천적 도덕적 성향이 같음을 강조한다.	
44	2020수능특강	매킨타이어는 덕(德)이란 실천에 내재된 선을 실현하는 성품이라고 본다.	
45	고난도 예상	길리건은 정의를 정서적 교감 능력과 함께 도덕적 성숙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덕목이라고 본다.	
46	고난도 예상	나딩스는 배려하는 사람은 배려 받는 사람의 반응과 요구를 고려해야한다고 본다.	
47	고난도 예상	나딩스는 배려 경험과 배려 받은 경험이 자연적 배려를 강화한다고 본다.	
48	고난도 예상	요나스는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은 모두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49	고난도 예상	요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체는 자기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성향을 가진다고 본다.	
50	고난도 예상	요나스는 인간과 자연이 호혜적이고 상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51	고난도 예상	칸트와 벤담은 모두 보편적인 도덕적 행위 준칙이 있다고 본다.	
52	고난도 예상	벤담과 밀은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항상 옳다고 본다.	
53	고난도 예상	벤담과 밀은 소수에게 이익을 위한 행위는 옳을 수 있다고 본다.	
54	고난도 예상	하버마스는 담론 과정에서의 정당성은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본다.	
55	고난도 예상	하버마스는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나 질문을 회피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56	고난도 예상	하버마스는 현실적으로 이해당사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57	고난도 예상	하버마스는 담론을 통해 결정된 규범의 부작용은 담론 과정에서 검토한 후, 담론 이후에는 부작용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58	고난도 예상	하버마스는 다수결을 통해 모든 담론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	

## STEP1. 컬러 고난도 선지OX 총정리

### THEME5. 사회 윤리와 사회정의론

※ 선지 우측에 별(★)표가 있는 문항은 반드시 해설을 참고하세요. 문항에 대한 해설 외에도 더 깊은 개념 설명을 수록했습니다.

	기출코드	선지	O/X
1	고난도 예상	니부어는 강제력의 사용은 불가피하지만 인간 집단의 근본 관심은 강제력이 없이도 완전한 평화로운 이상 사회의 건설에 있다고 본다.	
2	고난도 예상	니부어는 인간 집단이 강제력이 충분히 비폭력적인 사회의 건설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3	고난도 예상	니부어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고차원적인 이타주의라고 본다.	
4	고난도 예상	니부어는 사회 강제력의 강화와 힘의 불균등한 분배는 정의의 실현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본다.	
5	2019.9평(변)	니부어는 항구적인 평화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본다.	
6	2020.6평(면)	니부어는 폭력은 악이고 비폭력은 선이라고 본다.	
7	고난도 예상	니부어는 사회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8	2016.수능	니부어와 벵담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9	고난도 예상	니부어는 도덕적인 사람들로부터 승인받지 못할 방법을 사용하여 정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10	고난도 예상	니부어는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사이에는 화합하기 어려운 절대적 모순과 갈등이 존재한다고 본다.	
11	고난도 예상	개인윤리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외적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12	고난도 예상	니부어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도덕성이 사회 도덕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13	고난도 예상	니부어는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기심이 강화되어 분쟁 해결이 어려워진다고 본다.	
14	2019.6평(제)	니부어는 종교적 선의지를 지닌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15	2019.6평	니부어는 집단 간 대립상황에서도 개인은 비이기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16	고난도 예상	니부어는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동료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할 수 있는 도덕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17	고난도 예상	마르크스는 공산사회가 도래하면 분배에 대한 정형화된 기준이 사라진다고 본다.	
18	고난도 예상	롤스는 사유 재산의 불평등은 모두의 이익을 보장해야만 정당하다고 본다.	
19	2019.수능(제)	롤스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시장 체제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한다고 본다. ★	
20	2020.수특(심)	롤스는 일정 생활수준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	
21	2020.수특(심)	롤스는 복지국가 모델을 통해 정의의 원칙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22	2020.수특(심)	롤스는 부의 집중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23	2020.수특(심)	롤스는 자본과 자원의 소유를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본다.	
24	2019.수능(변)	노직은 이전 과정에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은 소유물은 모두 교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25	고난도 예상	노직은 최소국가가 유일하게 정의로운 국가라고 본다.	
26	고난도 예상	롤스는 무지의 베일 속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다고 본다.	
27	고난도 예상	롤스는 정의의 원칙은 무지의 베일 속의 사람들이 다수결을 통해 합의한 원칙이라고 본다.	
28	고난도 예상	롤스는 개인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사회 기본 구조와 소유권에 대해 합의한 것이 정의의 원칙이라고 본다.	
29	고난도 예상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생산력이 고도화된다고 본다.	
30	고난도 예상	노직은 롤스와 달리 과거 상황 행위가 응분의 자격을 유발한다고 본다.	
31	2019.9평(변)	롤스는 가상적 상황의 당사자는 심리학의 일반적인 사실을 안다고 본다.	
32	고난도 예상	노직은 롤스와 달리 정의의 원칙은 사회 기본구조에만 해당한다고 본다.	
33	고난도 예상	롤스는 유연성의 분포는 정의롭지도 부정적하지도 않은 임의적 사실이라고 본다.	
34	고난도 예상	롤스는 상속권과 증여권이 개인의 기본적 권리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	
35	고난도 예상	롤스는 사회적 약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사회 협동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STEP1. 킬러 고난도 선지OX 총정리

36	2019.6평(제)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들에게 공통된 정의감이 존재한다고 본다.	
37	고난도 예상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적 유대와 체제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본다.	
38	고난도 예상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타인의 처지와 이익에 무관심하다고 본다.	
39	고난도 예상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와 교환의 정의는 모두 비례의 동등함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40	2017.9평	롤스는 사적 소유권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승인될 수 있다고 본다.	
41	고난도 예상	롤스는 재화를 재분배하는 주체가 개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2	고난도 예상	롤스는 능력과 업적을 기준으로 재화가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43	고난도 예상	롤스는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가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 ★	
44	고난도 예상	롤스는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가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 ★	
45	고난도 예상	롤스는 개인의 타고난 능력을 발휘해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은 재분배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본다.	
46	고난도 예상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적 정의란 공동선과 덕을 장려하는 법을 지킴으로써 성립된다고 본다.	
47	고난도 예상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48	고난도 예상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49	고난도 예상	롤스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보장을 위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50	2020.9평(번)	니부어는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적 요소에 부합하는 강제력을 권고한다고 본다. ★	
51	2020.6평 (윤/제)	롤스는 안정적인 정치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념들이 중첩되는 지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본다.	
52	2020.6평(윤)	롤스는 국가가 다양한 신념체계를 단일한 신념체계로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F I N A L

활연관통

생운



생활과 윤리, 만점을 위한  
최고의 수험서, 활연관통

STEP

II

선지 OX퀴즈 총정리  
킬러 고난도  
정답과 해설

당신의 1등급이 이 교재의 철학!

**현우소 활연관통 시즌2**  
GOD'S MASTER PLAN



본 교재에 대한 저작권은 이현우와 현우소(주)에 있으며, 무단 복제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kendrick1028@naver.com으로 신고바랍니다.



## STEP2. 정답과 해설

### THEME2.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기출코드	선지	O/X
1	2020수능특강	스토아학파는 이성을 가진 모든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본다.	O
2	2020수능특강	스토아학파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본다.	X
3	2020수능특강	스토아학파는 모든 정념을 제거하는 태도를 추구한다.	X
4	2020수능특강	스토아학파는 칸트와 마찬가지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이성에 일치하는지 고려해야한다고 본다.	O
5	2020수능특강	스토아학파는 자기애를 넘어 동료 시민과 인류 전체에 대한 포용과 사랑을 강조한다.	O
6	2020수능특강	스토아학파는 아퀴나스와 마찬가지로 자연법이 모든 실정법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O
7	고난도 예상	아퀴나스는 인간이 가진 종족을 보존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을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	X
8	고난도 예상	스토아학파는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은둔자적인 생활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X
9	고난도 예상	매킨타이어는 도덕 생활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강조했다.	X
10	고난도 예상	매킨타이어는 행위의 도덕성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에 의해 판단된다고 본다.	X
11	고난도 예상	아퀴나스는 자연적 성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신이 부여한 인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O
12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보았다.	X
13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진리란 현실 속의 개별 사물에 대한 지식이라고 보았다.	O
14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는 반복적 실천을 통한 습관화를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X
15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인 덕과 품성적 덕 모두 이성과 결부되어 있다고 본다.	O
16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각각의 존재마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보았다.	O
17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도 세계에 대한 관조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O
18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 지혜를 최고의 덕으로 본다.	O
19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하나의 가치에 대한 중용의 상태가 바뀔 수 있다고 보았다.	O
20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에 이성적 판단이 개입된다고 보았다.	O
21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통해 실천적 지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X
22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대상이 실천적 지혜라고 본다.	X
23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을 통해 충동과 감정을 억제하여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추구했다.	X
24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덕인 철학적 지혜를 통한 지적 관조로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X
25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의 목적을 추구하는 자아실현에 있어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O
26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이성적 관조 활동에 뒤따라 일어나는 것이라고 본다.	X
27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을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이라고 보았다.	O
28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을 3가지 부분으로, 플라톤은 2가지 부분으로 구분했다.	X
29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 지혜는 숙고, 즉 이성적 헤아림의 대상이 되는 것에 관여한다고 보았다.	X
30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는 품성적 덕의 충분조건이라고 보았다.	X
31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는 중용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O
32	2020수능특강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은 인간의 모든 행동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라고 본다.	X
33	2020.06.모평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는 실천적 지혜가 없다면 형성될 수 없는 덕이라고 본다.	O
34	2020.06.모평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는 본성을 극복하여 형성해야하는 덕이라고 본다.	X
35	2020.06.모평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삶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O
36	2020.06.모평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떠나서는 어떠한 참된 정의도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O

## STEP2. 정답과 해설

37	고난도 예상	아퀴나스는 자연법에 대한 이성적 인식능력의 차이가 인간의 도덕적 지위에서 차등성을 유발한다고 본다.	X
38	고난도 예상	아퀴나스는 국가의 실정법이 자연법에 근거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본다.	O
39	고난도 예상	아퀴나스는 자연법은 영구불변한 법으로서 태초부터 인류에게 주어진 법이라고 본다.	O
40	고난도 예상	아퀴나스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라고 본다.	O
41	2020.09.모평	아퀴나스는 악이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한 실체라 본다.	X
42	고난도 예상	아퀴나스는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 기준은 자연법에 대한 인간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	X
43	고난도 예상	길리건은 여성이 차별받아 온 역사를 비판하면서 남녀의 선천적 도덕적 성향이 같음을 강조한다.	X
44	2020수능특강	매킨타이어는 덕(德)이란 실천에 내재된 선을 실현하는 성품이라고 본다.	O
45	고난도 예상	길리건은 정의를 정서적 교감 능력과 함께 도덕적 성숙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덕목이라고 본다.	O
46	고난도 예상	나딩스는 배려하는 사람은 배려 받는 사람의 반응과 요구를 고려해야한다고 본다.	O
47	고난도 예상	나딩스는 배려 경험과 배려 받은 경험이 자연적 배려를 강화한다고 본다.	X
48	고난도 예상	요나스는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은 모두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O
49	고난도 예상	요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체는 자기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성향을 가진다고 본다.	O
50	고난도 예상	요나스는 인간과 자연이 호혜적이고 상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X
51	고난도 예상	칸트와 벤담은 모두 보편적인 도덕적 행위 준칙이 있다고 본다.	O
52	고난도 예상	벤담과 밀은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항상 옳다고 본다.	X
53	고난도 예상	벤담과 밀은 소수에게 이익을 위한 행위는 옳을 수 있다고 본다.	O
54	고난도 예상	하버마스는 담론 과정에서의 정당성은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본다.	X
55	고난도 예상	하버마스는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나 질문을 회피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X
56	고난도 예상	하버마스는 현실적으로 이해당사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X
57	고난도 예상	하버마스는 담론을 통해 결정된 규범의 부작용은 담론 과정에서 검토한 후, 담론 이후에는 부작용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O
58	고난도 예상	하버마스는 다수결을 통해 모든 담론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	X

## STEP2. 정답과 해설

### THEME5. 사회 윤리와 사회정의론

※ 선지 우측에 별(★)표가 있는 문항은 반드시 해설을 참고하세요. 문항에 대한 해설 외에도 더 깊은 개념 설명을 수록했습니다.

	기출코드	선지	O/X
1	고난도 예상	니부어는 강제력의 사용은 불가피하지만 인간 집단의 근본 관심은 강제력이 없이도 완전한 평화로운 이상 사회의 건설에 있다고 본다.	X
2	고난도 예상	니부어는 인간 집단이 강제력이 충분히 비폭력적인 사회의 건설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O
3	고난도 예상	니부어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고차원적인 이타주의라고 본다.	O
4	고난도 예상	니부어는 사회 강제력의 강화와 힘의 불균등한 분배는 정의의 실현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본다.	O
5	2019.9평(변)	니부어는 항구적인 평화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본다.	O
6	2020.6평(면)	니부어는 폭력은 악이고 비폭력은 선이라고 본다.	X
7	고난도 예상	니부어는 사회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O
8	2016.수능	니부어와 벵담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O
9	고난도 예상	니부어는 도덕적인 사람들로부터 승인받지 못할 방법을 사용하여 정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X
10	고난도 예상	니부어는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사이에는 화합하기 어려운 절대적 모순과 갈등이 존재한다고 본다.	X
11	고난도 예상	개인윤리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외적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O
12	고난도 예상	니부어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도덕성이 사회 도덕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X
13	고난도 예상	니부어는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기심이 강화되어 분쟁 해결이 어려워진다고 본다.	O
14	2019.6평(제)	니부어는 종교적 선의지를 지닌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X
15	2019.6평	니부어는 집단 간 대립상황에서도 개인은 비이기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O
16	고난도 예상	니부어는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동료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할 수 있는 도덕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O
17	고난도 예상	마르크스는 공산사회가 도래하면 분배에 대한 정형화된 기준이 사라진다고 본다.	X
18	고난도 예상	롤스는 사유 재산의 불평등은 모두의 이익을 보장해야만 정당하다고 본다.	O
19	2019.수능(제)	롤스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시장 체제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한다고 본다. ★	O
20	2020.수특(심)	롤스는 일정 생활수준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	X
21	2020.수특(심)	롤스는 복지국가 모델을 통해 정의의 원칙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X
22	2020.수특(심)	롤스는 부의 집중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O
23	2020.수특(심)	롤스는 자본과 자원의 소유를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본다.	O
24	2019.수능(변)	노직은 이전 과정에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은 소유물은 모두 교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X
25	고난도 예상	노직은 최소국가가 유일하게 정의로운 국가라고 본다.	O
26	고난도 예상	롤스는 무지의 베일 속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다고 본다.	O
27	고난도 예상	롤스는 정의의 원칙은 무지의 베일 속의 사람들이 다수결을 통해 합의한 원칙이라고 본다.	X
28	고난도 예상	롤스는 개인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사회 기본 구조와 소유권에 대해 합의한 것이 정의의 원칙이라고 본다.	X
29	고난도 예상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생산력이 고도화된다고 본다.	O
30	고난도 예상	노직은 롤스와 달리 과거 상황 행위가 응분의 자격을 유발한다고 본다.	O
31	2019.9평(변)	롤스는 가상적 상황의 당사자는 심리학의 일반적인 사실을 안다고 본다.	O
32	고난도 예상	노직은 롤스와 달리 정의의 원칙은 사회 기본구조에만 해당한다고 본다.	X
33	고난도 예상	롤스는 유연성의 분포는 정의롭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임의적 사실이라고 본다.	O
34	고난도 예상	롤스는 상속권과 증여권이 개인의 기본적 권리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	X
35	고난도 예상	롤스는 사회적 약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사회 협동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O

## STEP2. 정답과 해설

36	2019.6평(제)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들에게 공통된 정의감이 존재한다고 본다.	○
37	고난도 예상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적 유대와 체제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본다.	○
38	고난도 예상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타인의 처지와 이익에 무관심하다고 본다.	X
39	고난도 예상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와 교환의 정의는 모두 비례의 동등함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
40	2017.9평	롤스는 사적 소유권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승인될 수 있다고 본다.	○
41	고난도 예상	롤스는 재화를 재분배하는 주체가 개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X
42	고난도 예상	롤스는 능력과 업적을 기준으로 재화가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X
43	고난도 예상	롤스는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가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 ★	X
44	고난도 예상	롤스는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가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 ★	X
45	고난도 예상	롤스는 개인의 타고난 능력을 발휘해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은 재분배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본다.	X
46	고난도 예상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적 정의란 공동선과 덕을 장려하는 법을 지킴으로써 성립된다고 본다.	○
47	고난도 예상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
48	고난도 예상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
49	고난도 예상	롤스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보장을 위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
50	2020.9평(번)	니부어는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적 요소에 부합하는 강제력을 권고한다고 본다. ★	○
51	2020.6평 (윤/제)	롤스는 안정적인 정치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념들이 중첩되는 지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본다.	○
52	2020.6평(윤)	롤스는 국가가 다양한 신념체계를 단일한 신념체계로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X

# THEME1. 윤리학의 분류와 윤리학적 탐구

1	X	2	X	3	O	4		5	
6		7		8		9		10	

- 도덕적 관행을 가치와 무관한 문화적 사실로 볼 것을 강조하는 입장은 **기술윤리학**이다. 해당 진술은 메타윤리학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 메타윤리학은 크게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로 나뉘는데, 인지주의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가능성을 인정한다. 반면에 비인지주의의 경우 윤리학이 '주관적 정서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아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가능성을 부정한다. (비인지주의의 대표적인 이론이 이모티비즘이다. 다른 말로는 정의주의, 정서주의라고 한다.)
- 만약 그렇지 않다면.....생활과 윤리는 뭐가 되지...? 학문적으로 성립가능하지도 않은걸 배우는 건가?ㅋㅋㅋㅋㅋ당연히 규범윤리학은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가능하다고 본다.
- 두 입장 모두 규범윤리학에 해당하므로, 윤리학의 당위적 가치 제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 그러타. 표현이나 익혀두자.
- 의미론적이고 의미론적인 구조에 대한 규명은 기술윤리학이 아니라 메타윤리학의 관심사이다.
- 그러타. 실제로 기술윤리학을 주장한 학자가 오귀스트 콩트와 같은 사회학자이다.
- 꼼꼼히 보자. 당연히 기술윤리학은 객관적인 이해와 분석을 강조한다.
- 상식적으로 그러겠냐.....? 만약 그러면 왜 윤리학인데? 틀렸다면 산속에 들어가서 심신을 가꾸는 수양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은 어떨까?ㅋㅋㅋㅋㅋㅋㅋ)
- 다시 말하지만 못 내는게 아니라 안낸 것뿐이다. 정의주의적 입장은 비인지주의에 해당하며, 비인지주의는 도덕적 진술의 진위를 논증할 수 없으며, 도덕적 진술은 단지 주관적 정서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아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 가장 현실적으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일 듯하다. 응용규범윤리학이야 설명할 가치를 모르겠고, 이론규범윤리학의 목표 역시 현실세계에 당면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므로 당연히 실천을 위한 학문이다.
- 그러타. 표현이나 익혀두자.
- 말이 되냐...? 당연히 상대적으로 본다.
- 그러타.
- 메타윤리학이 규범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관계다. 메타윤리학을 통해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가능성을 밝혀야 도덕 규범을 수립하든 말든 할거 아니냐?
-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선지가 되겠다. 기술윤리학에서는 각 사회의 도덕적 현상을 문화적 사실로 보아 이를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함을 강조한다.

17. 메타윤리학이 아니라 기술윤리학에 해당하는 주장이다.

**우문현답**

우리들의 질문에 현우가 답하다.

Q. 평소에는 잘 푸는 단원이지만, 이렇게 낮은 선지들을 풀어보니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에 대해 깊게 물어보는 선지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선지를 가를 수 있을까요?

A. 메타윤리학은 논리학으로, 기술윤리학은 사회학으로 생각하면 훨씬 수월하게 사고할 수 있을게다.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니라, 실제로 메타윤리학은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분석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기술윤리학은 오귀스트 콩트와 같은 사회학자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 (또또또 뭐 이런건 제시문 독해로 나오는데 지나치게 지엽적이네 뭐네 하면서 주접떨지 말고, 강 좀 꼼꼼하게 공부하자. 다시 말하지만, 못내는게 아니라 안 낸 것뿐이다.) 밑은 토론에서 소수 의견을 침묵하게 하면 소수 의견이 더 타당할 경우를 배제하는 상황이 도래하여, 다수의 이익 역시 침해된다고 본다.
- 19~20. 밑은 토론에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한 형식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지만, 내용적인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A의원이 B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신 공격을 가하거나 고의적으로 방해한다면, 국회는 A의원에게 발언 금지와 같은 형식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다.)
- 그러타. 표현이나 익혀두고, 이런 개념이야 말로 암기가 필요한 대상이다.
- 18번과 비슷한 맥락에서 살피볼 수 있는데, 우선 밑은 공리주의자 이전에 자유주의자이다. 자유가 보장된 상태가 공리에도 이롭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공리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정당하지도 않다.
- 어감이 나쁘다고 X하면 안된다. 앞선 5개 선지에서 꾸준히 설명해 왔으니까 더 이상의 해설은 필요 없어 보인다.
- 그러타.

# THEME2.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 (윤사) 기본개념이죠? 범신론적 관점에서 로고스 즉, 신과 자연과 인간은 이성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스토아학파는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이성을 가진 모든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본다.
- (윤사) 스프링노트에 나와 있는 자유의지 표현 삭제하라고 하셨음! (인선샘 피셜) 윤사 전체에서 자유의지가 없다고 보는 사람은 스피노자 밖에 없다.

- (윤사) 스토아학파는 정념을 비이성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충동을 의미하고 삶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므로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등과 같은 자연스러운 정념은 인정한다.
- (윤사) 어렵다. 우선 칸트가 자연법 사상을 계승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스토아 학파 즉, 자연법 사상은 행위가 이성적 법칙인 로고스에 일치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생각을 계승한 것이 칸트의 도덕법칙 사상이라고 이해하는 정도면 되겠다.
- (윤사)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는지? 생윤은 모르면 넘어가도 좋다.
- 스토아학파와 아퀴나스는 모두 자연법 사상이자 자연법이 모든 실정법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아퀴나스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연법은 신의 법인 영원법에 일치해야 한다고 보다는 것까지 알아두도록 하자.
- 그냥 총체적인 개소리다. (근데 요즘 기조가 수상하게 굉장히 내신타하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 아퀴나스는 신의 영원법에 일치하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하자.

인간의 자연적 성향		
자기보존	종족보존	진리인식

- (윤사) 자연의 섭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맞지만, 은둔자적인 생활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은둔자적인 생활을 추구한 것은 에피쿠로스의 입장이다.
- 기본적으로 매킨타이어와 같은 현대 덕윤리학자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드는 학자이다. 즉, 보편성과 이성에 대한 과신을 비판한 학자이다. 따라서 도덕 생활에 있어서의 보편적 원리를 강조하지 않는다.
- 인정. 어렵다. 매킨타이어가 행위의 도덕성 판단에 있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 비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의 구체적인 선택에 의해 판단된다고 보지도 않는다. 현대 덕 윤리는 칸트나 벤담과 같이 근대 철학의 객관성과 절대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감정만을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둔 흄, 주체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실존주의를 모두 비판한다.
- 그러타.
-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보긴 하지만, 그 목적이 전부 행복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목적이 행복인 존재는 인간뿐이다. 게다가 필기에 "각각의 존재마다 목적이 다르다"고까지 썼었다. 정 이해가 안되면 2018수능 아리스토텔레스 지문참고
-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기본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어둔 이유는 표현 정도만 눈에 익혀두자. 조심스러운 예측으로는 이 표현을 잘 다듬으면 성리학의 격물치지 개념과도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다.

14.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이지만 나올 때마다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이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챙겨두도록 하자. '실천적 지혜'의 습관화를 통해 '품성적 덕'이 형성되는 것이다.
15. 그러다. (이후 27번에서 다시 엮어서 설명)
16. 그러하다.
17.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그중 하나가 지성적 덕이다. 지성적 덕은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로 또 다시 구분되는데, 지성적 덕은 (수능특강 서술에 따르면) 세계에 대한 관조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포함관계에 따라 실천적 지혜도 철학적 지혜와 마찬가지로 세계에 대한 관조를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이해가 안된다면 그냥 그러하구나 하고 마음에 두지 말고 넘기길 바란다.)
18. 크흐~ 현우의 조심스러운 예측. 이거 나오면 시험장 박살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 지혜를 최고의 덕으로 본다. 수능특강 80P 자료플러스 두 번째 제시문을 참고하자.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인데, 당연히 최고의 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최고의 덕이란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경우 즉 진리에 대한 순수한 관조를 가능케 하는 철학적 지혜를 최고의 덕으로 본다.
19. 덕 윤리 전반의 특징으로 접근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다.
20. 당연하다. 중용은 실천적 지혜와 관련된 것인데, 실천적 지혜는 이성과 결부되어 있다.
21. 이걸 틀렸다면 진짜 반성하자. 실천적 지혜는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것은 맞지만, 중용의 결과물은 아니다. 실천적 지혜는 중용을 판단해주는 힘이다.
22. 뭐 오답 스멜이 강력하게 나서 웬만하면 맞지 않았을까? 21번과 같은 맥락으로 중용의 대상은 실천적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다.
23. '어떤 상황에서도'를 지워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행위에 있어 중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떤 상황에서도'를 지우면 이후 문장은 '중용'에 대한 정의가 되겠다. 표현을 눈에 익혀두자.
24. 18번 선지랑 엮어서 이해해두자. 철학적 지혜가 최고의 덕이긴 하지만, 철학적 지혜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고 본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지덕복합일설을 넘어서 주의주의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25. 지금부터는 초지엽 선지라서 틀리더라도 크게 마음 쓰지 않아도 좋을 듯하다. 맞았다면 더 좋고. 지엽적이기는 하나 덕 윤리 전반의 특징으로 접근했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인선쌤 필기)
26. (초지엽) 수능특강 80P 자료플러스 두 번째 제시문. 행복은 순수한 관조에 뒤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관조 속에 깃들여 있다.
27. 이걸 반드시 챙겨두자. 결정적 킬러선지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 선지다.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이라는 표현은 '이성과 결부/관련됨'이라는 표현과 다른 표현이다. 품성적 덕이 실천적 지혜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이성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애초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개념 자체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품성적 덕 자체는 인간 영혼의 감정이나 욕구 부분과 관련된 덕이다. 수능특강 80P. 표를 참고하라.
28. 설마 틀렸을까? 쉬어가는 느낌으로 넣어 둔 선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을 2가지 부분으로, 플라톤은 3가지 부분으로 구분했다.
29. 어려웠을 법도 하다. 수능특강 80P. 왼쪽 날개를 보자. 이성적 헤아림의 대상이 되는 것에 관여하는 지혜는 철학적 지혜가 아니라 실천적 지혜이다. 보충해서 설명하자면, 속고란 이성적 헤아림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다시 이성적 헤아림이란 상황 맥락 속에서 어떤 행위 내지는 판단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헤아림을 의미한다. (인선쌤 피셜) 그런데 철학적 지혜의 대상이 되는 수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은 당위가 아니라 사실을 다루는 지식이므로 맥락적 헤아림이 필요하지 않다.
30. 이번 기회에 충분/필요조건 판단 방법에 대해 정립하고 가자. '충분/필요조건'에 관련된 선지가 나오면 언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A는 B의 충분조건**'은 '**B하는데 A 말고는 필요 없다**', '**A는 B의 필요조건**'은 '**B하는데 A 말고도 뭔가 더 필요하다**'로 바꿔서 생각하려는 습관을 들이자. 이렇게 생각해야지 선지가 전달하고 있는 정보가 직관적으로 다가온다. 어쨌든 실천적 지혜는 품성적 덕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품성적 덕의 형성에는 실천적 지혜 말고도 '덕의 습관화' 등 다른 조건들이 더 필요하다.
31. 진짜 설마 틀렸을까..... 해설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
32. 인간의 모든 행동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33. (2020 6평 13번/윤사)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를 쾌락의 과도함과 모자람이라는 두 악덕 사이의 중용이라고 본다. 따라서 절제란 품성적 덕의 일종으로 실천적 지혜를 필요로 한다.
34.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의 덕이 본성에 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며, 습관에 의해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35. 그러다
36.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자로 국가가 공동체에 있어 최상의 덕이라고 본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37. 아퀴나스는 자연법에 대한 이성적 인식능력
- 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부여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38. 아퀴나스는 실정법이 자연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실정법이 자연법이 가리키고 있는 인간의 자연적 권리(자기보존, 종족보존, 진리인식 등)를 침해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다.
39. 자연법의 성격은 영구불변하며 보편성을 가진다.
40. 그러하다. 기본 개념.
41. (2020 9월 모평 15번/윤사) 윤사에 나왔으므로 생운에도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악이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악은 신이 결여된 상태에 불과할 뿐, 실체라 볼 수 없다.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든다. 어둠이란 어떠한 실체도 아니다. 그저 빛이 결여된 상태일 뿐이다. 선과 악의 관계도 이와 같다.)
42. 아퀴나스는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 기준은 신의 법칙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 본다. 인간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법은 경험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이성으로 인식해야 하는 대상이다.
43. 길리건은 남녀의 선천적인 도덕적 성향과 관심사가 다를 것을 강조한다. 여성은 내면적 특성이나 감정에 기반한 배려가 두드러지는 반면에, 남성은 개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 정의와 같은 정의감을 강조한다고 본다.
44. 수능특강 표현이다. 당황할 수 있으므로 눈에 익혀두자.
45. 길리건은 도덕적 성숙을 판단할 때 정의와 정서적 교감 능력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의윤리와 배려윤리 간 상호 보완성을 강조한다.
46. 너무 상식적인 얘기다.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줄 때에도 여자친구가 받고 싶은 선물을 취하려는 것처럼 말이다.
47. 무슨 멘델의 유전법칙이냐? 자연적 배려는 모성애와 같이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감정에서 비롯된 배려를 의미한다.
48. 환경윤리 내용이라 요즘 많이 힘이 빠진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냥 알아두자. 그러다.
49. 그러하단다. 참고로 테일러에게도 옳은 설명이다.
50. 요나스는 책임질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인간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비호혜적이고 일방적인 책임을 강조한다.
51. 준칙이란 말을 칸트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칸트는 도덕법칙, 벤담은 공리주의적 원칙과 같은 보편적인 도덕적 행위 준칙 내지는 규칙이 존재한다고 본다.
52. 경험적으로 공리주의에서 '항상, 무조건' 등과 같은 부사어가 나오면 80% 이상 확률로 옳지 않은 선지가 된다.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공리주의가 비판받는